

오디션 시장의 블루오션 '미스트롯'



"이제 더 이상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볼거리가 있겠느냐"는 회의가 지배적일 때, '내일은 미스트롯'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시장에 주목했다.

트로트 장르를 내세워 돌풍을 일으킨 TV조선 오디션 '미스트롯'을 두고 방송가에서는 비주류의 역습이라 부른다.

◇신선함과 대중성으로 시청률과 화제성 함께 확보

소외된 장르가 준 신선함과 트로트가 지닌 본연의 대중성은 기획 단계부터 방송계와 가요계 안팎에서 관심을 끌었고 결국 흥행에 성공했다.

지난주 시청률은 11.2%(닐슨코리아 유료가구)를 기록하면서 JTBC '효리네 민박'도 넘어 종합편성채널 예능 사상 최고 성적을 내기도 했다.

또 방송 직후마다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미스트롯'과 참가자들이 장악하고,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 중 한 곳인 멜론에서 흥자의 '상사화', 송가인의 '용두산 엘레지' 등 주요 경연곡이 스트리밍 순위 상위권에 오르는 화제성도 입증했다.

'미스트롯' 홍보사 3HW COM은 프로그램 인기에 대해 "'미스트롯'은 거대 자본화한 아이돌 산업, 아이돌 위주 가요 시스템에서 침잠해 가던 '트로트'에 조명

신선함·대중성 ... 시청률 11% 종편 예능 신기록

의상 등 선정성 논란엔 "결국 실력이 증명한다"

을 맞춰 기획했다"라며 "시청률과 광고수입이라는 절대가치에 의해 소외됐던 트로트라는 영역을 활용해 반전을 꾀한 게 통했다"라고 자체 분석했다.

또 톱스타만 내세우는 프로그램 대신 학생부터 직장인, 주부까지 일반인들과 데뷔했지만 빛을 보지 못한 가수들을 참가자로 초대하고 그들의 숨겨진 사연은 물론 실력에도 주목한 점도 특기할 만하다.

아울러 트로트 장르를 TV조선 기존 주 시청자층인 중장년층을, 오디션이라는 포맷은 젊은 층을 공략하는 데 각각 가능한 점에서도 영리한 기획이 엮여있다.

◇선정성·대표성 논란에 "실력 없다면 설명할 수 없는 호응"

물론 잘나가는 프로그램인 만큼 호평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방송 초반 경연 참가자들의 의상 등이 너무 선정적이고, 장운정을 제외한 심사위원단 면면도 트로트 장르를 심사할 수 있을 만큼의 대표성을 띠다

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었다.

아울러 트로트의 대중성 외에 전문성에 집중하는 장노년층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트로트를 너무 가볍게만 보는 것이 아니냐", "트로트의 본질보다 영리한 연출에만 기댄 것 같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결국에는 참가자들의 실력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서해진 국장은 13일 통화에서 "프로그램 콘셉트 자체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포맷을 가져왔기 때문에 예선전 일부에서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이후에는 청바지에 흰 티셔츠 등 다양한 의상을 선보였다"라며 "선정적이라는 비판에 가뭄기에는 참가자들의 실력이 너무 뛰어나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대중이 노래 실력으로 판단해준다. 실력으로 승부하니까 시청률도 높은 것 아니겠냐"라며 "또 트로트는 우리 참가자들의 다양한 면면만

큼 다양한 대중이 즐기는 장르다. 북부터 장영란, 봄, 박명수 모두 자기 음반을 내본 사람들이고, 시청자 눈높이에서 함께 즐기며 심사해준다"라고 강조했다.

◇대규모 전국투어 콘서트 이후 '포스트 미스트롯'은

'미스트롯' 열기는 TV 밖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프로그램 측은 다음 달 대규모 전국 투어 콘서트를 예고했다.

콘서트는 다음 달 4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을 시작으로 7월까지 인천, 광주, 천안, 대구, 부산, 수원으로 이어진다. 콘서트에는 대회 화제를 모은 참가자들이 대거 출연해 남녀노소가 모두 즐기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엔터테인먼트 101' 시리즈 방영 때 만나던 오디션 프로그램 콘서트까지 열게 된 만큼 '미스트롯'이 시즌제로 자리잡을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미스트롯' 인기에 각종 공연, 행사 문이 쏟아지는 만큼 우승자 등의 활동에 대해서는 아예 전문 매니저먼트사가 지원할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못지않은 방향이다.

아울러 미국 현지 콘서트도 추진하고, 남자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미스터트롯' 등 차기 시즌 역시 구상 중이라고 TV조선은 밝혔다. /연합뉴스

'그것이 알고 싶다' - 5·18 잔혹한 충성편 휴스턴영화제 탐사보도 부문 특별상

SBS는 지난 13일(현지시각)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린 휴스턴 국제 영화제에서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비롯한 총 6개 프로그램이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심사위원특별상을 받은 '그것이 알고 싶다-잔혹한 충성 편'은 한국 국방부 내 기밀 문건 8천쪽과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30년 기밀해제 문건을 언론사 최초로 수집했다. 이를 통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미국 정부가 처음부터 5·18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방송 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고, 국방부 내 진상규명 위원회도 출범하는 등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이밖에 교양 프로그램 '영재발굴단-총북 단양의 피아노 소년 배용준 편', 예능



'정글의 법칙 인(in) 남극', 'SBS 8 뉴스-특별사면과 평창올림픽...삼성의 은밀한 뒷거래'가 플래티넘상을, 드라마 '리턴'이 금상을, 시사교양 'SBS스페셜-움직여라! 발가락 편'이 은상을 차지했다.

MBC TV 시즌제 드라마 '검법남녀'도 드라마 시리즈 부문에서 금상을 차지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법의학자와 신참 검사의 공조 수사를 그린 이 작품은 오는 6월 시즌2 방송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오늘밤 김제동' ... 박지원-전원책 매주 '맞짱'

목요일 '그건 그대 생각이'

KBS 1TV 시사토크쇼 '오늘밤 김제동'이 방송시간을 앞당기고, 입담 좋은 보수진보 주자들을 내세운 토크 코너를 신설하는 등 봄맞이 개편을 단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방송 시작 시각은 월요일은 기존과 똑같이 밤 11시, 화~목요일은 기존보다 5분 이른 10시 55분이다. 방송시간은 40분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새 코너로는 '박용진X박종진의 박진감'과 '박지원X전원책의 그건 그대 생각이'를 주목할 만하다.

매주 월요일에는 진보 측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보수 측 박종진 전 채널A 앵커가 시사 현안에 대해 박진감 넘치는 토론을 선보인다.

목요일에는 이미 '오늘밤 김제동'에서



세 차례 호흡을 맞춰 화제성도 시청률도 견인하는 데 한몫 한 정치 9단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맞짱을 친다.

이밖에도 매주 수요일에는 KBS의 '음악통'으로 불리는 양성모 기자가 출연해 '오늘밤 주크박스' 코너를 선보여 음악에 숨은 시사 현안의 의미를 풀어낸다. '오늘밤 브리핑', '오늘밤 현장', '오늘밤 소비자', '오늘밤 20대 연구소' 등 코너도 마련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비켜라 운명(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전국이장회의(재) 50 UHD 한식의 마을(재)	00 국민 여러분(재)		00 우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55 회사 가기 싫어 2019(재)	00 12 MBC 뉴스 25 다큐 나는...산다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합설계(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거북이 다투스 5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25 뿌까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40 와이드 코리아 플러스(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TV쇼 진품명품(재)	00 자동차부채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에어로브 55 뽀뽀뽀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55 경성판타지	00 2019 한국민영방송대상 우수상 수상작 제주 4.3 현장을 찾아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다큐멘터리 3일(재)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0 KBC 저녁뉴스 55 영재발굴단(재)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55 닥터 365
7	00 KBS 뉴스 7 40 전라도 매력청	50 원순정이 아내	30 MBC 뉴스데스크	00 생방송 TV블로그 폼지락 55 SBS 8 뉴스
8	30 비켜라 운명(재)	30 글로벌24 55 국민 여러분(재)	5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10	00 시사기획 창 55 오늘밤 김제동	00 국민 여러분	00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00 해치
11	35 UHD 숨터 40 KBS 스페셜	10 회사 가기 싫어 2019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40 KBS 뉴스 50 KBS 결집 다큐멘터리	15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재)	05 100분 토론	4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2:00 EBS 정오뉴스
06:00 한국기행(재)	12:10 미래교육 플러스
06:20 세계테마기행(재)	13:00 다큐 오늘
07:00 너티니츠	13:10 최고의 요리비결 (조개숙국과 우렁 김치)
07:3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13:40 사건 브리핑-안전상황실
08:00 당동명 유치원1~2	14:30 정글에서 살아남기-마루의 어드벤처
08:30 띠띠뽀 띠띠뽀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15 탐정 구조대
09:00 뽀뽀뽀 뽀뽀로	15:45 몬카트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6:15 짹과 팡
09:40 극한직업 스페셜	16:30 방귀대장 뽀뽀이(재)
10:30 한국기행	16:45 당동명 유치원1~2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코다리 김치찌개와 방통고기전)	17:15 마사와 곰
	17:30 로보가 폴리
	17:45 띠띠뽀 띠띠뽀(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 하니1~5
	19:00 미니특공대 X
	19:30 EBS 뉴스
	19:50 극한직업 스페셜(재)
	20:40 세계테마기행 <세상 멋진 동남아 고원 기행 2부 여기 살고 싶다 코로>
	21:30 한국기행 <장터에서 놀아보자, 한판 2부 해남에 취하다>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조식포함 아파트
	23:55 모두의 모바일 MOMO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6일(음 3월 12일 쫓매)
<p>子 36년생 단일한 목적 아래 모여드는 이들이 있다. 48년생 초기 계획과는 약간 다르게 이행 될 가능성이 높다. 60년생 희망적인 동세이니 가히 기대해 볼만한 사국이다. 72년생 진땀을 뺀 일이 생긴다. 84년생 알맞은 것을 찾기는 쉽지 않음을 알라. 행운의 숫자 : 56, 99</p>	<p>午 42년생 상응하는 대책을 세워야겠다. 54년생 교류를 위한 통로나 수단이 절실히 요청된다. 66년생 봉당을 빌려 주니 안방까지 달라는 이가 보인다. 78년생 편만을 추구한다면 자기 틀에 갇히리라. 90년생 갑작스러운 변동으로 인해 걱정거리가 생긴다. 행운의 숫자 : 01, 38</p>
<p>丑 37년생 속히 진행할수록 성과가 두드러진다. 49년생 함께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61년생 잡다한 손익에 얽매이지 말고 진퇴를 분명히 해야 할 때이다. 73년생 좀 더 세분화한다면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85년생 상대의 충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행운의 숫자 : 43, 97</p>	<p>未 43년생 원래 상태로 회귀함도 괜찮은 국량이 될 것이다. 55년생 뜻을 같이 하라. 67년생 지나치다만 위험한 형국을 자초할 수도 있느니라. 79년생 상대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을 수도 있느니라. 91년생 작은 것은 내버려둬도 자연히 해결 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83, 73</p>
<p>寅 38년생 유익한 일을 도모하라. 50년생 예상 밖의 커다란 변수가 보이니 대비하라. 62년생 크게 상관될 일이 아니니 개의치 말라. 74년생 기본적인 것에 충실 하는 것이 실속이다. 86년생 현안을 타결하느나 못하느나 성공여부의 관건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0, 37</p>	<p>申 44년생 조건을 완화한다면 효과가 더 크다. 56년생 위상을 갖추게 될 것이다. 68년생 물라도 될 일을 알게 되어 걱정하리라. 80년생 식견이 풍부한 이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옳다. 92년생 안정된 마당이 되면서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겠다. 행운의 숫자 : 21, 82</p>
<p>卯 39년생 과정에 충실하면 결실을 맺는다. 51년생 분명히 해달라 뒤달라 없는 법이다. 63년생 경사스런 소식이 들려오리라. 75년생 간단한 문제가 아니므로 개별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 87년생 불가항력적인 고역이니 어찌할 도리가 없겠다. 행운의 숫자 : 70, 42</p>	<p>酉 45년생 밤심하다가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57년생 대처 해야겠다. 69년생 걸으면만 번지르르하게 붕괴되어 있는 상태이니 살펴야겠다. 81년생 발적으로 이동하는 대국이다. 93년생 미혹되어 제대로 걸려들면 곧장 후회하게 될 것임을 알라. 행운의 숫자 : 30, 33</p>
<p>辰 40년생 느긋으로만 판단하여 건너졌으면 낭패를 볼 수 밖에 없다. 52년생 거처적거리기만 하고 소용되지 않는다. 64년생 추진해야 할 때이다. 76년생 표출하지 말고 흡입해야 할 시기이다. 88년생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행운의 숫자 : 74, 25</p>	<p>戌 34년생 전환 될 가능성이 있다. 46년생 흥행 받게 되는 부딪힘이 있다. 58년생 힘들더라도 과정에 충실하다보면 금전운에 대박 나게 되어 있다. 70년생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해야 할 판세에 이른다. 82년생 매끄러운 마무리가 이미지를 좌우 하겠다. 행운의 숫자 : 44, 03</p>
<p>巳 41년생 좌각으로 인해 차질을 빚게 된다. 53년생 체면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이다. 65년생 인간은 겪어 봐야 알고 물은 건너봐야 아니니라. 77년생 소홀함은 곧 실패로 이끈다. 89년생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능히 버텨낼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1, 47</p>	<p>亥 35년생 숨은 뜻을 이해하라. 47년생 효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 59년생 절대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71년생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 하리라. 83년생 오매불망으로 학수고대하여 왔던 바를 오늘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이루게 된다. 행운의 숫자 : 60, 32</p>